코믹 영화의 '귀환'

최근 계속된 한국 영화계의 침체 속에 부진을 면치 못했던 코미디 영화가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가문의 위기', '두사부일체' 등 코미디 영화는 정통적으로 한국영화 흥행의 효자 장르였지만 최근에는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정준호, 김수로 등 코믹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배우들이 본격 코믹 영화로 복귀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찌마와 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의 임원희.

한국 영화 침체 속 서서히 기지개…'다찌마와 리…', 정통코미디물 '울학교 이티' 기대

13일 개봉한 '다찌마와 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이하 다찌마와 리)는 독특한 코드의 코믹 액션 영화다. '다찌마와 리'는 지난 2000년 화제를 모았던 촌티 철철 넘치는 인터넷 단편 영화 '다찌마와 lee'의 확장 버전으로 전편에서 명동 제일의 협객이었던 주인공은 이번에 최정예 국가 비밀요원으로 변신했다.

'2대8' 가르마를 고수하는 촌스런 주인공 다찌마와 리가 첩보계의 검은 꽃으로 불리는 여성 요원 마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게 주된 줄거리지만 그들의 활약은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다찌마와 리'의 재미는 역시 '대사'에서 나온다. 주인공은 1960년대~1970년대 '방화' 속 성우가 낼듯한 목소리로 '당신은 내 마음의 세입자', '더러운 죄악에 종지부를 찍을 내 주먹을 사라' 등의 대사를 날리며 웃음 폭탄을 던진다.

인터넷 영화 '다찌마와 lee'를 통해 혜성같이 등장한 후 '재밌는 영화' 등을 통해 충무로에 입성, 독특한 연기를 펼쳐온 임원희가 주인공 다찌마와 리 역할을 맡았으며 영화 '사랑', '구미호 가족'의 박시연이 마리로 등장한다. 또 공효진과 류승범, 안길강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추석 개봉을 앞둔 영화 '울학교 이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아라한장풍대작전', '짝패'의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기대감을 높인다.

추석 개봉을 앞둔 영화 '울학교 이티'는 모처럼 선보이는 정통 코미디 물이다.

코믹 연기의 귀재지만 최근 정통 코미디에서 한발짝 물러서 있던 김수로가 주연을 맡은 '울학교 이티'는 갑작스레 영어 선생이 돼야만 하는 체육교사의 고군분투를 그린 작품이다.

평생 몸 단련만 해온 체육선생 천성근. 철밥통이라고 생각했던 체육선생 자리가 위태위태해지고, 결국 학교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 하루 아침에 영어교사가 돼야하는 운명에 처한다. 지난 10년 동안 영어와 담을 쌓았던 그는 사생결단 영어 스파르타 트레이닝에 들어간다. 김수로와 함께 '말아톤'의 백성현 등이 출연한다.

'울 학교 이티'는 올 추석 극장가를 찾는 유일한 코미디물로 매년 추석마다 관객몰이에 나섰던 '조폭마누라'(2001년·520만명), '가문의 영광'(2002년·502만명) '오! 브라더스'(2003년·314만명) '귀신이 산다'(2004년·280만명), '가문의 위기'(2005년·570만명)의 영광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정준호·정웅인·정운택·김상중 등 '두사부일체'팀은 코믹 액션 영화 '유감스러운 도시'(이하 유감도)로 돌아온다.

'유감도'는 양조위·유덕화 주연의 홍콩 영화 '무감도'의 패러디 버전이다. 정준호는 경찰이지만 특수 임무를 띠고 조폭으로 변신하는 장충동 역을, 정웅인은 조폭으로 조직의 명령에 따라 경찰에 투입되는 이중대 역을 맡았다.

여기에 한고은이 경찰청 내사과 여형사로 정웅인과 사랑에 빠지는 차세린 역으로 출연한다. '사랑과 야망', '천하일색 박정금' 등 주로 드라마에서 활동했던 한고은은 정우성 등과 출연한 영화 '태양은 없다' 이후 10년만의 스크린 나들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목! 이 영화

'엑스파일-나는 믿고 싶다'

美 인기드라마 두번째 극장판 영화

외계인의 음모와 초자연적인 현상을 소재로 했던 미국의 인기드라마 '엑스파일'의 두번째 극장판 영화다. 1993년 첫 에피소드를 시작한 '엑스파일'은 2002년까지 9시즌을 방영,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마니아를 양성했다.

TV 시리즈물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데이빗 듀브코니와 질리언 앤더슨을 비롯해 크리스 카터 감독과 각본가 프랭크 스포니츠 등 첫번째 극장판 '엑스파일-미래와의 전쟁'의 제작진이 그대로 뭉쳤다.

요원 한명이 갑자기 사라지자 FBI는 심령술이 있다고 주장하는 조셉 신부의 말을 듣고 수사를 진행하다 실종 요원의 잘려진 팔 하나를 찾는다.

수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 휘트니 요원은 6년 전에 폐쇄된 엑스파일 부서의 멀더와 현재 의사로 활동중인 스컬리를 다시 불러 들인다.

스컬리는 아동 성추행 전력이 있는 조셉 신부를 불신하지만 멀더는 그의 심령술에 믿음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 용
다찌마와 리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라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코믹 액션극으로 우스꽝스러운 대사가 압권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씨너스 전대	
엑스파일 :나는 믿고 싶다	TV 드라마로 제작돼 화제가 됐던 작품. 초자연적인 현상이 등장하는 미스터리물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씨너스 전대	
아기와 나	졸지에 아기를 키우게 된 고등학교 남학생 이야기로 장근석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하미, 씨너스 전대	
당신이 잠든 사이에	탁재훈, 예지원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10년지기 우정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엔터, 씨너스 전대	
고사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죽게되는 시험을 소재로 한 공포물로 이범수, 김규리가 주연을 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씨너스 전대	
다크나이트	배트맨 시리즈의 하나로 고인이 된 히스 레저가 악당 조커 역을 맡아 화제가 됐다.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씨너스 전대	
월.E	우주를 청소하는 로봇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따뜻한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씨너스 전대	
미이라 3 :황제의 무덤	7년 만에 돌아온 미이라, 이집트 피라미드 대신 중국의 진시황릉을 찾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씨너스 전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00% 검거율의 형사와 100% 범죄 성공률의 절도범이 벌이는 두뇌 게임.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씨너스 전대, 하미, 엔터	
님은 먼곳에	1971년 베트남,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 당신을 찾기 위해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 든 한 여자의 순애보.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가 한 장의 지도를 얻기 위해 서로 치열한 추격적을 펼친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